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43. 넷째 나팔

2013. 10. 27.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셋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넷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8:12]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삼분의 일과 달 삼분의 일과 별들의 삼분의 일이 침을 받아 그 삼분의 일이 어두워지니 낮 삼분의 일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1. 목사님, 지난시간에 셋째 나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진리를 따라 증거하고 생활하는 참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오류를 교회 안으로 불러들인 햇불같이 타는 밝은 별,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 쫓겨난 루시퍼가 심히 광명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와서 세속적 권세에 물들어가던 교회에 썩물을 먹이고 진리를 핍박한 교회라는 이름의 조직이 암흑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조직에 얼굴을 가리시고 떠나시는 것으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넷째 나팔에 대하여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답: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셋째 나팔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명료하게 요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넷째 나팔의 내용도 셋째 나팔과 연관된 사건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상징적 표상들이 있습니다. 해, 달, 별, 낮, 밤, 3분의 1 등입니다. 여섯 개의 상징입니다. 셋째 나팔에도 여섯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하지 않았는데, 햇불, 별, 강, 물 샘, 하늘에서 떨어짐, 썩, 3분의 1이 그것입니다.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에는 상징들이었지요. 그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세어보니 수가 서로 같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이 짝을 이루고 셋째와 넷째가 짝을 이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둘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한 세력에 대한 징치하는 심판이고, 셋째와 넷째는 둘째 나팔의 결과로 막는 자가 없어지자 사단이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 땅으로 쫓겨나면서 햇불같이 타는 밝은 별로 가장하고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 미친 결과로 교회라는 이름의 엄청난 조직이 어두움의 근원이 된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성소 속죄봉사가 교회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오류에 휩싸여 어둡게 되고 지도자들은 흑암의 세력의 추종자가 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해는 예수님을 나타내지요.(말4:2) 달은 교회를 나타냅니다.(아6:10), 별은 지도자이지요.(계1:20) 낮은 해가 활동하는 시간이고 밤은 달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총체적인 어두움이 덮이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2. 총체적이 어두움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거두시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말씀 같은데, 그런 뜻입니까?

답: 그런 뜻인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나팔에서 햇불같이 타는 무척 밝아 보이는 별이 떨어졌지요. 그것의 실상은 썩이었지요. 그것이 진리의 근원들을 오염시킵니다. 두아디라 교회 시대와 셋째 넷째 인 시대에 해당되는 시대입니다. 그 조직은 세상적 안목, 또는 일반적 안목으로 아주 밝은 빛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께서 속죄봉사하시는 것을 차단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8장에 계시된 작은 뿔이 하늘 성소를 혈고 타미드를 제하는 것을 다른 각도로 보여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며 세상이 진리와 속죄 은혜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어두움에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재앙입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와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흑암이 이끄는 것을 빛으로 생각하고 어두움에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사가들도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야말로 엄청나 불행의 시대입니다. 넷째 나팔은 이런 시대에 대한 상징적 예언입니다. 루시퍼가 세상의 교회를 장악한 결과입니다.

3. 그러면 해, 달, 별, 낮, 밤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의 영향이 극대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을 통하여 세상이 진리와 참 복음에 어둡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된다는 뜻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진리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어두움의 세력으로 온 세상이 진리와 복음에서 차단되는 비극을 맛보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 비극의 한 가운데 하늘성소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서 봉사하십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표현은 중보 하신다는 말입니다. 중보하시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속죄봉사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와서 회개하면 예수께서는 그를 위하여 당신의 피 흘리신 손을 드시고 나의 피 나의 피라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시며 당신의 속죄하는 피를 뿌리십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뿌린 피라고 했습니다.

[히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지 않으면 속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뿌리셔서 속죄를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피 뿌리는 느낌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는 개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피 뿌리는 속죄 봉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벧전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피 뿌리는 봉사가 하늘에서 행하시는 성소봉사이입니다. 세상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은 죄인이 잡은 희생제물의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뿌리는 것을 속죄를 선포했습니다. 그림자 봉사에서 그렇게 한 것은 참 하늘에서 그렇게 봉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친히 하시는 이 봉사를 받지 않으면 실제로 속죄받

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롬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같리지 아니하나니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런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진리를 썩물이 되게 하고 자기 일꾼들을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게 하여 세상에서 사람이 예수께서 하는 이 속죄를 찬탈하게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히 하늘에서 당신의 피를 뿌리시며 속죄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인간 사제들이 이 일을 감당한다고 가르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람의 입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믿게 하므로 실제로 예수님의 봉사를 받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죄의 세상에 죄를 먹고 마시고 호흡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넷째 나팔은 셋째 나팔에서 교회조직의 탈을 쓴 흑암의 권세의 실상을 드러내는 심판을 행하였고, 그 권세로 인하여 세상이 어두움의 시대가 된 것을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 9~12에 나타난 심판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러니까 첫째 둘째 나팔 때처럼 파괴하고 현실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런 체제 아래서 진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심판이라는 뜻입니까?

답: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는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가 그렇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그렇습니다. 또 첫째 나팔과 둘째나팔도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을 따라서 이런 멸망의 심판도하시고 이미 셋째 나팔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형태의 심판은 심판의 대상을 내어버려두고 그들을 떠나심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빛과 진리가 없어집니다. 셋째 넷째 나팔의 성질은 이 둘째 심판의 형태입니다. 그것을 해, 달, 별, 낮, 밤이 어두워지는 것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런 천연계에 이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사13:9,10]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10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취지 아니할 것이로다.

[겔32:7,8]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여 8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욘2:10]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욘3:14,15]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15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런 말씀들이 다 해, 달, 별들이 빛을 잃게 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넷째 나팔은 구약성경의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심판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세상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와 빛이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암5:18] 화 있을진저 여호와와 빛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와 빛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두움이고 빛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심판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의인에게 여호와와 빛은 구원의 날이요 광명과 기쁨의 날이지만 악인에게에는 흑암과 두려움의 날입니다.

5.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은 소멸로 집행이 되지만, 역사적으로 있는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나 노아 홍수 때처럼 파멸로 집행되는 심판도 있고, 또 셋째 나팔이나 넷째 나팔처럼 심판의 대상의 정체를 드러내는 판결을 하는 심판도 있다는 말씀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심판의 보좌를 베풀고 행하시는 심판은 작은 별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세상으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을 하여 햇불처럼 타는 별처럼 보이는, 실제로는 흑암인 그 세력에서 나오라고 세상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고(계14:6,7)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심판이지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내용을 공부할 때 자세히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개혁 시대가 되었지만, 문화적 사조 때문에 개혁이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대 교회 현상입니다.

셋째 나팔의 연속으로 넷째 나팔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조직들이 계속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상태를 함께 드러냅니다. 학자들은 소위 교회가 세상의 철학을 성경 해석의 도구로 끌어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의 이성주의 관념주의로 풀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화하는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별들이 어두워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팔의 여파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가는 설득력 있는 통찰을 제공했는데요, 햇불같이 불타는 별의 영향으로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소위 교회문화 신앙문화가 형성되어서 그 문화적인 압력이 역사적으로 지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개혁시대를 거쳐서 16세기에서 18세기에 일어났던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교회가 세속주의, 회의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등의 영향으로 진리에 대하여 어두운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했네요. 그것이 둘째 국면의 심판이라는 의미이지요. 이런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성소에서 속죄봉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교회 시야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지요. 예수 이름으로 불리는 교회가 예수를 시야에서 잃어버린 것은 가장 큰 파멸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연장선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6. 목사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넷째 나팔은 셋째 나팔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셋째 나팔에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져 온 불타는 햇불 같은 밝은 별의 모습으로 등장한 쑥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났으나 실상이 쑥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것이 차고얕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고 떠나시는 것으로 교회라는 조직으로 있는 그 권세가 진리를 떠난 흑암에 빠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성

소에서 속죄중보하시는 것을 인간이 대신하게 함으로 교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는 속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그냥 두셨고, 그 영향으로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계몽주의가 개혁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는 세속주의 이성주의 회의주의 인본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어서 하늘성소봉사에 대한 진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암흑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지요. 제가 바르게 이해했습니까?(예, 아주 잘 정리하셨습니다.) 결국 넷째 나팔은 교회가 타락한 상태에서 올바른 진리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세속적 학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상태에 그냥 두신 것이 심판이라는 뜻으로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7. 그러면 이 설명은 목사님의 견해입니까? 다른 분들의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 저는 성경의 해석이 성경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성경 전체의 사상과 흐름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을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4각 기둥의 네 면이라고 여러 번 말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면, 즉,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짐승들과 여자들로 계시된 장면들이 그 진행에 있어서 잘 조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생각으로 나팔로 표상된 계시를 상고할 때, 첫째, 둘째 나팔 사건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는 우리교회에 여러 학자들이 지지하는 견해입니다. 셋째 넷째 나팔은, 첫째 둘째 나팔처럼 분명하게 징계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 데는 논리상으로 쉽지 않지요. 그래도 셋째 나팔은 햇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확실한 사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구절들을 다 말했지요. 그것이 바로 루시퍼 사단이라는 것이지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심판의 분명한 결과입니다. 셋째 나팔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요. 루시퍼가 하늘에서 심판으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조직을 장악한 것이지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셋째 나팔에 심판이 루시퍼의 심판을 골자로 했다는 것은 제가 다른 데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루시퍼의 영향으로 하늘성소봉사를 차단했다는 것은 어떤 분이 말씀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분과 저의 생각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참고하는 것은 중요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에서 합리적인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한 창40:8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사실을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4:12~14에 있고, 더 분명하게 계시록 12:7절 이하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장을 공부할 때 자세히 이야기해야 하겠지요. 셋째 나팔에서 햇불처럼 불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루시퍼가 하늘에서 심판을 받고 땅으로 내어 쫓기는 장면이 확실하거든요. 이미 찾아본 대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확인하기 위하여 한 번 더 그 구절을 읽어보지요.

[눅10: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번개처럼 떨어졌다는 것은 빨리 떨어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불타는 햇불처럼 광명한 상태로 떨어졌다는 의미도 되지요. 그리고 계시록 12: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12: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

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쫓기니라.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 쫓겨나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12절에는 넷째 나팔로 일어난 사실에 대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계12:12]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것이 땅으로 내려옴으로 땅에 화가 미치게 되었지요. 셋째, 넷째 나팔의 심판의 실상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해야 하겠지만, 이 장면과 셋째 나팔 장면은 동일한 것을 계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8. 설명은 여기까지 들으니까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셋째, 넷째 나팔의 심판의 성질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가 그 역사적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렇다고 생각합니다.)

8장 마지막 구절을 설명할 시간이 되겠지요?

답: 마지막 구절을 읽어봅시다.

[계8:13]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를 세 번 연거푸 말합니다.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경고를 해도 세상이 꿈쩍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루시퍼에게 장악된 암흑의 조직이 꿈쩍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한 경고가 이르겠다는 선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수리가 선언하지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중에 독수리가 출현한 것은 남은 세가지 나팔로 이를 화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을 읽어보시지요.

[렘13:16]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예, 독수리가 무엇인지 화를 세 번이나 연거푸 말했는지,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만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흑암에 있지 않도록 말씀의 빛에 바르게 따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